

## 연세대 2021학년도 기출 인문사회 오후 1-1번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 씨'의 노동을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제시문 가>

노동이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이다. 노동은 자연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공동의 노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산된 세계이다. 또한, 노동은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이다. 동물의 욕구는 자연을 통해 직접 충족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오직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재료를 자연 속에서 찾으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가공과 그 산물에서 마침내 만족을 얻게 된다. 노동의 희열은 단순한 근육 사용이나 숙련성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인식에서 생겨난다.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한 결과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노동자의 만족감은 공동으로 창조한 생활양식 속에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함께 건설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한 평가는 변해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저속한 것으로 경멸했다. 완전한 인간은 귀족으로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여야 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죄에 대한 벌로 보았다.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났고 죄의 물락을 짊어지고 있으며 결국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교는 노동을 큰 축복으로 본다. 칼뱅주의는 노동의 성과를 구원의 징표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적 직업의 책임 개념으로 이어졌다. 노동이 축복이고 존엄이며 인간의 가치척도라는 인식은 그러한 바탕에서 생겨났다. 여기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와 “일함으로써 절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축복이 포함된다.

<제시문 나>

인간은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 영구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얻게 된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고 훌륭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악착같고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인간을 경제적 풍요의 품으로 데려다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풍요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구현할 줄 알고 더욱 완벽해지도록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 수단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 생각에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즐길 줄은 모르고 그저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이다. 별다른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가 실로 두려운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계급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그들이 기껏 성취랍시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이들은 저 약속된 땅을 먼저 보고 캠프를 마련한 선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난에 가까운 실패만 저질러왔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약간만 더 경험을 쌓으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이 새로운 전리품을 오늘날 부자들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며, 부자들이 계획하는 삶과는 아주 다른 계획으로 삶을 짜나갈 수 있다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은 노동에 얽힌 원죄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에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하게 되고, 의무와 과제와 지루한 일상으로 찌든 노동을 기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강제로서가 아니라 되레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배하는 노동의 양이 세 시간 정도의 교대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노동의 원죄 의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하루 세 시간 정도 노동이면 충분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 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 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흙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 놓은 자리와 기와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셔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 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 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얹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공이: 굳은살

---

---

나란히 걷기

---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임 씨'의 노동을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독해]

- (가) 노동 - 목적을 위한 의식적 행위 - 존엄한 행위 → 욕구 충족 -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당당함
- (나) 미래에 물질주의와 생계 압박으로 인한 노동에서 해방되면 → 여가를 고귀하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다) 임 씨의 노동: 장인정신을 갖고 완벽하게 작업 수행 →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노동 - 목적을 위한 의도적 행위 - 존엄한	인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존감
대상	(다)	임 씨: 장인정신을 갖고 완벽하게 작업 수행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임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나)	생계와 물질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고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
대상	(다)	장인정신을 갖고 완벽하게 작업 →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노력	고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시답안] 657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핵심	제시문 (다)의 임 씨는 주어진 일에 완벽을 기하는 장인이다.
	대상 상술	그는 장인정신을 갖고 완벽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놓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 극단적인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장	이러한 임 씨는 노동의 신성성을 추구하는 존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 핵심	그는 노동을 통해 고귀한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가)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존엄한 행위를 통해 인간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적용	따라서 임 씨는 자신이 하는 노동의 신성성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그에게 본질적, 도덕적 자부심을 선사할 것이다.
3	주장	하지만 이러한 임 씨의 노동을 생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여지도 있다.
	기준 핵심	인간은 결국 노동에서 해방되어 여가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나)에 따르면, 미래의 인간은 자본의 축적을 통해 물질주의나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즉, 노동이란, 본질적으로 해방의 대상이지, 목적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용	따라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임 씨의 노동은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인간의 해방을 위한 격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학 출제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응시자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논술시험은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고전과 윤리」 등에서 다루는 ‘직업과 행복’, ‘행복의 의미’, ‘삶의 목적’에 관련된 주제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유도하였다. 노동의 의미와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이다. 본 논술시험은 익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응시자가 데이터와 수리적 개념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를 제시문의 맥락에서 논리정연하게 추론하고 확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그래프는 교과서와 신문, 교양서적에서 자주 접하는 형식을 자료로 제시한다. 수학 문항은 연산 능력보다 개념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칼 야스퍼스의 저작인의 『역사의 기원과 목표』(백승균 역)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노동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로 본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노동에 도덕적 가치가 부여된 역사·종교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30년에 쓴 에세이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저자는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에 의해 100년 후 인류 역사상 없었던 풍요로운 사회가 실현될 거라 예상하며, 물질주의와 노동에 찌든 일상을 극복하고 여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제시문 다〉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발췌하였다.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양심과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한 빈자의 노동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다.

### [대학 문항해설]

출처와 형식이 다른 제시문들의 연관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노동을 인간 존재의 요건으로 본다. 제시문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며, 그 과정과 산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신교에 의해 종교적 가치와 당위성이

노동에 부여되면서, 인간은 근면하게 직업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내면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제시문 나〉는 노동에 대한 강박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세상에서는 삶을 즐길 줄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 미덕일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풍요로운 세상이 실현된다면 노동에 얽힌 원죄 의식과 의무감은 삶을 완벽하게 가꾸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과도한 노동과 돈에 대한 집착을 지양하고 여가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집주인 화자의 시점에서 옥상을 수리하는 ‘임 씨’의 태도를 묘사하고 나아가 ‘임 씨’의 삶이 처한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제시문을 통해 ‘임 씨’로 표상된 노동하는 주체의 성격과 그의 노동이 지닌 사회경제적 맥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 씨는 숙련된 솜씨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동 과정에서 최대한 완벽을 추구하려 애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문이 기술적 완성도와 책임의 완수에서 의미를 찾는 노동 주체를 그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은 또한 임 씨가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려준다. 비가 와서 집수리가 어려운 날에도 임 씨가 쉴 수 없거나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다. 임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존재이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은 노동을 함으로써 절망하지 않지만 동시에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절망적 현실을 사는 ‘성실한 빈자’의 노동을 이해의 시선으로 담고 있다.

임 씨의 노동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완성하는 창조 활동이자 직업적 책임을 완수하는 이상적인 행위로 그려진다는 면에서 〈제시문 가〉의 노동관과 일치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임 씨의 노동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작업을 수주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임 씨의 노동에서 〈제시문 가〉가 강조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현실이고 극복의 대상이 된다.